

## 하이데거 지문 해설

1.

1번 신칸트학파는 존재자성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자성은 하이데거가 정의한 개념이고 신칸트학파가 정의내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존재자성의 의미는 하이데거 자신이 주장하는 존재 개념 중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개념을 모두 말하는 것 이므로 신칸트학파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차별적인 존재개념은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존재개념입니다. 다양한 존재개념은 하이데거가 말하고자하는 존재의 물음과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하이데거의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하이데거의 존재는 존재물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문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존재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존 본질이라는 개념도 하이데거의 존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야합니다.

4번 1st. 선일치 후추론

첫 번째로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는 지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2nd. 선술어적 조건으로서의 존재는 하이데거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번 존재자성은 하이데거가 말하고자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문에 쓰여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2. ㄱ. 하이데거가 거론하는 존재는 형이상학적 존재개념을 포괄하는 존재물음입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존재개념은 하이데거의 존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진리존재는 형이상학적 존재개념의 일부로서 하이데거가 접근하려는 존재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ㄷ. 첫째문단 7번째 줄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ㄹ. 형이상학은 존재자성의 물음에 대하여 존재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자성은 하이데거가 정의내린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문 어디에도 존재자성의 물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5번 존재물음은 하이데거가 명시한 것으로서 형이상학에서의 주도적 물음인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